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에 관한 논의 개별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호규 동국대학교-서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샤야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구분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개별성과 공리주의의 관계 틀에서 살펴본 결과 밀은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적극적인 자유의 전제인 원자론적 개인을 부정하고 있다. 밀은 사회계약론이 주장하는 원자론적인 개인이 아니라 관계망에서 사는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린의 구분에 근거한 밀의 자유에 대한 개념 논의는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실체가 있고 명백한 압력과 같은 물리적 권력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밀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압력도 문제가 되지만 나아가 개인의 심리/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 압력과 개인 자유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KEYWORDS 개별성, 공리주의, 합리적 자유, 상호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 호혜 관계, 인식의 자유

* hokyulee@dongguk.edu

1. 서론

이샤야 벌린(Berlin, 1958)은 자신이 분류한 소극적/적극적 자유 중, 밀은 소극적 자유인 외부 간섭의 부재를 주장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존 그레이(Gray, 1996) 또한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p. 251). 반면에, 켈턴 스키너(Skinner, 1998)는 밀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결정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오바니 지오지니(Giorgini, 2013)는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벌린이 제시하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모두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오지니는 밀의 자유 개념에 대한 상반된 논의들 - 밀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고 하는 학자들의 논의들 - 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밀의 자유 개념은 매우 다층적이므로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벌린의 구분을 극복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오지니는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구분의 한계를 지적할 뿐,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의 밀의 자유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김정래(2006)와 윤성현(2009)은 밀은 벌린이 제시하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김정래는 밀의 논의에서 개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밀은 개별성 개념을 이용하여 고전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였듯이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존재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비록 김정래가 밀의 개별성 개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지만(89-90쪽), 개별성이 밀의 공리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창희(2017)는 밀은 소극적 자유를 수용하면서도 그 범위를 넘어 적극적 자유를 승인하여 자유주의의 확대를 모색하였다고 논의하고 있다.

해외와 국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가 밀의 자유 개념을 벌린이 제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구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매칼럼(MacCallum, 1967)은 벌린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자유는 오직 하나의 개념만이 있다고 말한다. 즉 x 가 z 를 행하거나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압력이나 방해가 없는 상태가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는 어떠한 제약 조건으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를 의미한다. 만일 추구하는 목적이 없거나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간섭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벨라미(Bellamy, 2020, p. 25)는 벌린의 자유 논의는 소극적 자유의 전제가 되는 원자론의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벌린의 자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다. 벌린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유와 자신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는 논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같은 것을 소극적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언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Berlin, 1958, p. 131)”고 서술하였다. 벌린의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이 상호 배제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벌린의 이분법을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밀의 자유 개념이 매우 다층적이므로 하나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지오니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의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계약설이 주장하듯이 개인과 사회는 대립하고 있고, 개인들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음이 아니라, 밀이 주장하였듯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벌린은 간과하고 있다. 벌린의 자유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분법 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분법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식론적 창틀(epistemological groove)¹⁾에서 살고 있음을 주지할 필

요가 있다. 인식론적 창틀이 우리들의 연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벌린의 이분법을 고집한다면, 지오지니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의 다층적인 면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벌린의 이분법의 인식론적 창틀에서 벗어나 밀의 논의에 충실함으로써 밀이 자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밀은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의 주장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사회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인간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앞에서 몇몇 연구들이 제시하였듯이, 만약 밀이 소극적인 자유론자라면, 오언의 주장에 반기를 들 필요가 없다. 만약 오언의 주장이 진리라고 한다면, 인간의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밀은 주장하고 있다(Mill, 1843, p. 152).²⁾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밀은 주변 환경의 영향과 관계없이 인간의 주체적인 결정(self-determin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는 밀의 전반적인 논의에서 토대 역할을 하고 있다. 밀의 논의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밀의 논의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

1) 인식론적 창틀 개념은 이니스(Innis, 1951)가 <The Bias of Communication>에서 groove(사전적 의미로는 창틀과 문지방 홈, 고정된 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연구자가 만든 개념임을 밝힌다. 이니스는 11쪽에서, 글쓰기는 독자들과 이후 작가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수로(grooves) 역할을 한다. 29쪽에서 마치 작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려는 순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움직임의 궤도(grooves)에 있어야 한다. 209쪽에서 현대 교육의 특징은 대체로 정해진 틀(grooves) 속에서 작동된다. 세 문장에서의 groove의 의미와 이니스가 왜 groove를 사용하였는지를 연구자는 생각하면서 다음의 예를 생각하였다. 창틀의 홈(groove)에 개미를 갖다 놓았다고 치자. 개미는 평생 창틀의 홈에 갇혀 있을 것이다. 사람들도 자신이 혹은 타인이 만든 인식의 창틀 홈에 갇혀있음을 지적하고자 인식론적 창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2) 본 논문에서의 밀의 저작물은 1960년에 설립된 Liberty Fund의 Online Library of Liberty(<https://oll.libertyfund.org>)에서 접근 가능한, 1963년 토론도 대학교수인 Robson, J. M. 이 편집한 총 33권의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의 pdf 파일을 참고하였다. 해당 저작물의 쪽수는 pdf 파일의 쪽수를 언급하였다.

면, 밀에 있어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는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자유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상정하여 마치 자유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³⁾ 아니면 무엇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밀이 제시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밀이 왜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였는지? 개인의 자유와 밀의 공리주의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찰하면서 밀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해 논의를 하고, 둘째, 새로운 인간에게 필요한 개별성의 의미에 대해서 밀의 논의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탐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 그리고 공리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셋째, 개별성을 위해 밀이 제시한 합리적 자유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인간 관계로서의 상호 우월성을 인정한 호혜 관계를 살펴보면서 여타 자유론자들이 간과하였던 심리적인 자유 나아가 인식의 자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민주주의와 새로운 인간상의 필요성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의 민주주의 출현을 상상해보자.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당시 유럽의 전통적인 귀족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로 인해 세계가 곧 망할 것 같은

3) 이 문제에 대해서 샤퐼어(Schauer, 1982)는 〈Free Speech: A Philosophical Enquiry〉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자유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지아의 발전 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종말론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다. 황제가 살해되고, 기존의 계급 제도들이 붕괴하고, 민중들이 사회 주체 세력으로 부상하는 현상들은 기존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변화라고 인식되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당시까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던 각 계급의 영역이 붕괴함을 의미하였다. 민주주의는 주어진 한계를 무자비하게 소멸시키는 작업이었다. 민주주의 이름 아래 기존의 관습에 대한 도전은 사회 혼란과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를 낳았다. 황제와 여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다. 사회 혁명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와 정치 관계를 뒤흔들었고 개인의 정체성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름 아래 사회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선천적인 지위에 의해 자기 삶의 방향과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는 그러한 굴레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함을 전제로 무한정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시민들이 서열, 직업, 혹은 출생으로 분류될 때는 이미 정해진 인생을 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무한정의 기회가 나타났다(Tocqueville, 1840/2010, p. 760).” 토크빌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바로 기존의 한정된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한계가 없는 상상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면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전승된 사회 역할의 제약에서 벗어났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모든 사람 각자가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염원을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구조가 급변하고 개인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다른 형태의 개인이 요구되었다.

민주주의로 인해 기존의 사회관계를 지배하는 원칙에 변화가 필요해졌으며, 과거와 비교해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타인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와

는 상반된 민주주의 환경에서 사람들의 자이는 공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였듯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결정하는 방향을 무조건 수용함은 자신을 부정할뿐더러 민주주의에서의 개인의 공적인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Tocqueville, 1840/2010). 밀은 개인의 사회적인 의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지 개인의 이기주의가 인간 행위의 지배적인 동기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다 보니, 공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인간 영혼들의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민주주의 시민들이 자신들 스스로 생각해야 할 책임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예부터 전승해온 관습을 아무런 성찰도 없이 동조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⁴⁾ 사람 대 사람이라는 평등한 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와 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새로운 인간상과 그에 따른 사회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밀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한 토크빌의 글을 보면서 당시의 영국의 시대 상황이 미국의 그것과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토크빌은 <Democracy in America>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다수의 횡포라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해 밀은 개별성(individuality)을 통해 다수의 횡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개별성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천함을 특징으로 한다. 개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대중의 압력에 순응하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유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었다. 밀은

4) 이러한 동조 현상이 현재 한국에서도 관찰된다. 학업 성적이 뛰어난 경우에, 개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보지 않고, 많은 사람이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가는 것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자신이 특정 정치 집단(예를 들면 대깨문)에 속하고 있으면서, 왜 내가 '대깨문'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논리도 없이, 이 집단을 좋아하고 집단에 속해 있음을 기분 좋게 생각한다면 밀이 우려한 무조건적 동조라 할 수 있다.

개별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에 적합한 개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계급사회와 민주주의 체제의 구분 기준은 개인의 정체성이다. 계급 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태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변화하는 환경과 자신의 노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한계를 제거하고 개인의 성격과 능력을 끊임없이 변화함을 요구한다. 계급사회와 비교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과연 모범이 되는 개인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개인이 무한정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밀은 낭만주의의 개별성의 개념을 새롭게 나타내고 있던 민주주의에 적합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19세기의 영국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였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적합한가에 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었다.

3. 개별성, 인간의 행복, 그리고 자유와의 관계

1) 밀의 논의에서의 자유와 개별성의 관계

밀의 논의에 의하면, 개인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에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가 되어있는지를 살피는 것보다 개인이 처한 사회 상황 요소들의 관계 특성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밀은 〈자유론〉과 〈여성의 종속〉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권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권력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밀의 자유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는 개별성

이 있다. 밀이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자신의 저작물들인 〈공리주의〉, 〈자유론〉, 〈여성의 종속〉 등에서 개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자신의 공리주의에 관해 설명하면서 양적 공리주의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개인의 행복을 달리 정의하였다. 〈자유론〉에서는 자유와 개별성의 중요성 그리고 개별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폈고, 〈여성의 종속〉에서는 개인의 개별성이 침해당하는 객체로서의 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밀은 두 저작물을 통해 개인이 삶의 주체가 되는 데 필요한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 확보 혹은 확보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밀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밀의 〈공리주의〉, 〈자유론〉, 〈여성의 종속〉, 그리고 이외의 저작물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개별성이 밀이 제시하고 있는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밀의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밀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 ‘개별성’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밀은 공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유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으며, 개별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개별성은 자유의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이 같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밀의 자유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이 제시하고 있는 개별성 개념과 자유의 관계를 파악하고, 개별성 개념이 밀의 논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밀이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밀의 저작물을 통해 두 개념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일단 밀은 〈자유론〉 3장에서 개별성과 개인의 자유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아무리 악명 높은 폭정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개별성이 발휘될 여지가 남아 있는 한 아직 최악의 상태는 아

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을 따른다거나 인간이 만든 율법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등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최악의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Mill, 1859/2013, 122쪽).”

이 부분에서 본 논문은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독재 체제’라는 주장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독재 체제 (despotism)로 인한 자유의 부재를 이해함으로써, 자유와 개별성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밀은 개별성 제고를 위한 개인들의 모든 노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부자유라고 간주하였다. 밀이 강조한 개별성은 밀이 자유에 관해 주장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비록 밀이 개별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밀의 여러 저작물을 참고하였을 때, 잠정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계발하여 자신이 선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인의 능력과 스스로 계발하는 행위이다. 비록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성격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개별성이 아니다. 자신의 욕구와 충동이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발전을 시키지 않고, 오언이 주장하듯이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이는 “자신의 성격이 아니라 기계”에 불과하다 (Mill, 1859/2013).

밀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격을 만들어 가면서 자신을 발전시켰을 때 이를 개별성이라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밀이 비록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자신의 성격과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이 객관적으로 이상적인 성격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밀은 개인의 성격과 능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밀은 자신의 스승인 벤담과 같이 이상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성격을 상정하고 있음은 매우 위험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Mill, 1833, p.113). 자신의 발전을 의미하는 개별성은 지속적이고 활동적인 과정이다.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수정한 자신의 공리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행복은 개별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의 관습이나 타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개인과 사회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개별성이 상실된다(Mill, 1859/2013, 110-111쪽). 밀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별성을 함양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공리주의자로서, 밀의 논의에 의하면, 개인의 최선의 윤리는 바로 자신의 행복이며, 개별성은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진보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밀에 있어서 개별성은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 자유에 대한 논의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의 중요한 개념이다. 요약하면 밀의 논의에 따르면, 개별성을 위해서는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개별성을 자유롭게 제고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개별성을 계발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복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밀의 자유 개념은 밀의 개별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 성찰을 통한 자기 극복으로서의 개별성 제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별성(individuality)은 무엇인가? 개별성 제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개별성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와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개별성은 낭만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개념이지만 개인주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개별성은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인 괴테(Goethe), 헤르더(Herder), 그리고 훔볼트(Humboldt)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낭만주의 시대와 이후에도 개별성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이념에 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Bercovitch, 1990, p. 633). 개별성은 낭만주의에서 비롯되었는데, 개인의 독특함이나 기이

함을 의미하였다. 밀이 민주주의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새롭게 정의하면서, 밀의 개별성 개념은 밀의 질적 공리주의와 개인의 자유 관계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밀의 개별성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협조와 사회의 응집력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들의 능력이 변창함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 고립된 개인은 없다. 주변과 항상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간다(Mill, 1859/2013, 152쪽). 밀의 논의에서 개별성은 새롭고 특이한 의미가 있다. 밀이 우려하고 있는 동조 혹은 순응에 대조되는 개념인 개별성은 다수의 의견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마치 반사회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개별성은 사회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주변의 세계를 보고 자신의 내면을 깊게 조사하여 자신의 견해가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내적 신념에 의지할 수 있다. 개별성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자신의 가치와 염원을 반영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때 나타난다. 자율성 개념이 아마도 개별성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성과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칸트가 논의하고 있는 자율성은 보편적인 이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을 따라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 간다는 의미다. 반면에, 밀이 의미하는 자율성은 칸트의 보편적인 이성에 근거한 자아와는 구별이 된다. 밀은 개인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카벨(Cavell, 1988)에 의하면, 사람들이 변화함에 따라, 각각 자신의 가능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각자에게는 새롭지만, 각각 성취할 수 있는 자아들을 알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다음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모든 원 주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원이 그려진다.”(Cavell, 1988, p. xxxiv). 사람들의 성취에 대한 객관적인 모델이 없듯이, 사람들이 마

말히 고수해야 할 정적이고 원초적인 진정한 자이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성의 목적은 한계가 없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개별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우리는 개별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밑에 의하면, 첫째, 자신들을 남의 손에서 놀아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압력들에 대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순응하지 않고자 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밑은 당시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근대 삶의 특징은 개인들을 단순한 소비자 혹은 생산자와 같이 자본주의 논리와 사회에서의 지명도를 자신들의 행위를 지배하는 중요한 동기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Mill, 1836).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압력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포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성은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방법이다. 더불어 각자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실패하면, 앞에서 언급한 공적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다. 즉 우리는 동조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신들의 훌륭한 판단에 거슬러서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아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이 인식될 정도로 명확하지 않다. 습관이나 충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별성 추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영향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고립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삶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태도가 바로 성찰이다. 자기 자신을 신중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려가 있는 생각이 요구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과 가치들을 문화, 역사, 가족, 조상, 심지어 또래 친구들로부터 무분별하게 전해 받는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행위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람들과의 관계들에서 형성되는 여러 가치와 믿음 등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성찰을 하면서 자신들의 개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성은 자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이 요구된다.

3) 자유를 제재하는 주체의 변화와 밀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

근대 민주주의 이전에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주체가 국가 혹은 정부였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정부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믿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다수의 횡포”(24쪽) 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목격하였다(Mill, 1859/2013). 다수의 횡포는 사회에서 집단의 형태로 혹은 공적 권위 행위의 형태로 다수 혹은 지배적인 의견과 감정으로 표현된다(Mill, 1859/2013, 25쪽).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행태 이외의 수단에 의해 침해를 받는다.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 노예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Mill, 1859/2013, 25쪽). 밀이 생각하기에, 권력과 강요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들과 관계가 있는 모든 일의 영역에서의 가능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밀은 공동체의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강요의 한계를 “단 하나의 단순한 원칙”(32쪽)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Mill, 1859/2013).

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밀의 주장에서 중요한 개념들의 의미 변화이다. 자유와 횡포 개념이 국가나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일 때와 그 주체가 사회로 이행되면서 두 개념의 의미가 변화하였다. 침해하는 주체가 정부일 때와 다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압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의 의미 변화는 밀에 있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에도 변화가 필요하였다. 아마도 토크빌의 다음 주장이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전에 존재하였던 것들과는 다른 억압이다. 나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현상들을 제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독재(despotism)와 횡포(tyranny)와 같은 예전의 단어들은 적합하지 않다. 그것들 자체가 새롭다 (Tocqueville, 1840/2010, pp. 1248-1249).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용어는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자유는 자연인이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이를 제지하는 외부 세력이 있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이 자유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유의 주체와 자유 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밀은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위협을 매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사회적인 억압과 정치적인 억압의 다른 점은 사회에 의한 개인에 대한 외부적인 세력들에 의한 억압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들의 선택과 판단을 사회에게 위임한다. 밀의 “매우 저속하고 비열하고 노예와 같은 근성의 성격”(28쪽)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Mill, 1859/2013). 밀은 〈자유론〉에서 강조하기를, “자유를 원하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 그것을 이용

하지도 않는”(28쪽) 사람들이 있다(Mill, 1859/2013). 더욱이, 노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당시의 빅토리아 시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사회가 독재로 타락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위험 요소이다. 민주주의에서 모두 평등하지만, 인식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⁵⁾(Mill, 1873/2010, 20쪽).

이 주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독재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외부 세력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타인에게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 자신의 자유를 양도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무엇을 선호하는가? 혹은 나의 성격과 기질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와 같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보다는 “과연 내 위치에서 무엇이 적합한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선호하는가?”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준거 틀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한다. 그들은 관습의 멍에에 고개를 숙인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의해 결정하지 않는다. 아예 그들이 추구해야 할 본성도 없다(Mill, 1859/2013, 118쪽).” 밀은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우려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예근성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따라서 밀은 자유의 개념을 성격의 요소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밀의 주장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향에 무엇이 적합한지보

5) 인식적인 종속은 요즘 문제되고 있는 가스 라이팅 혹은 가스등 효과에서 관찰된다. 비록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교묘하게 타인의 심리를 조작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다는 습관적으로 선택한다는 것 이외는 그 어떠한 성향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그 어떠한 감정 혹은 의견들을 갖고 있지 않다.”(Mill, 1859/2013, 118쪽). 여기서 밀은 선택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밀은 선택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미 확립된 사회의 규칙과 관습들과 개인의 기준, 선호, 그리고 성향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의 기준들을 의문시하는 사람들만이 자신들에게 무엇이 적합한지를 생각하고 선택한다. 이렇게 밀은 계속해서 “관습이 단지 관습이라는 이유로 관습에 순응”(113쪽)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Mill, 1859/2013). 그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실행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하지 않는다(Mill, 1859/2013, 113쪽). 밀의 논의에 따르면,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해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생각과 실천들에 대해 의문시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횡포는 바로 사회 혹은 정치적인 물리적인 제재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집단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Mill, 1859/2013, 46쪽)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밀이 개탄하고 있는 점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 자유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단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유가 상실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밀은 선택과 자신의 결단력을 이용하여 외부 세력에 의한 자유의 상실 개념으로부터 개인의 역량으로 논의를 이행시켰다. 밀이 자유 상실의 원인을 개인의 내부의 역량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밀의 사회의 진보에 관한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은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내부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만을 고려한다면,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벌린의 적극적 자유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밀이 제시하고 있는 내부 역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적극적 자유 이상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과 개별성의 관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제약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밀이 〈자유론〉과 자신의 저작물에서 우려하고 있는 제약은 ‘개인의 심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리적인 제약은 저항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로부터의 제약은 인지하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개인의 개별성을 위협하는 심리적인 압박이다(Mill, 1859/2013, 44쪽). 그러나 기존의 자유론자들은 다양성을 위협하는 심리적인 압박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즉 사적 공간에서는 사회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자신의 독특함을 보장하는 고유한 정신적인 세계이며 지적 능력인 내면적인 세계(internal culture)다. 이는 개인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Mill, 1873/2010, 153쪽).⁶⁾ 내면의 세계는 바로 개별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Donner, 1991, pp. 107-112).⁷⁾ 밀이 내면의 세계와 개별성을 연결하고 있는 점을 보면, 밀은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제약뿐만 아니라 ‘과거에 행해진 제약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

만약에 한 개인이 과거에 관습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강요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비록 개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어떠한 제약도 없어서 자유롭다고 느낀다손 치더라도,

6) 최명관(2010)은 Internal Culture를 ‘내적 교양’으로 번역함. 그러나 밀의 논의를 참고하였을 때 내적 교양보다는 내면적인 세계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7) 밀의 내면의 세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이외에 밀이 정신적 위기를 극복한 후에 인간에게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남을 생각하는 공감과 같은 능력 등을 의미한다. 이는 밀이 지적하고 있는 인간의 사회성을 지지하는 개념이다. 밀은 인간은 독립된 존재이지만 타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만들어 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밀은 자서전에서 정신적인 위기를 겪기 전의 젊은 자신이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의해 제조되면서, 내적인 세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개탄하였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⁸⁾ 이러한 논의는 밀이 강조하고 있는 개별성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다. 밀은 개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단지 다양성을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개별성은 자신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함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밀의 주요 논점은 성격의 다름에 대한 관용을 촉진하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바로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단지 관습이기”(113쪽) 때문에 관습에 순응함을 우려하였다(Mill, 1859/2013). 이와 같은 수동적인 순종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는 개인이 단지 전통에 순종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 전통적인 가치가 마치 영원한 사실인 것처럼 적용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습관화되면서, 비록 그 사람이 그러한 가치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행동을 하여도, 개인은 전혀 자유롭지 않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공교육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여, 자녀들을 사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자.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사적인 교육 이외의 그 어떠한 가치, 지식, 삶의 양식에 대해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부모님에 의해 그들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수로화(channelization of epistemology)가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과 다른 것들을 배척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사회에서 부모들 혹은 그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비록 어떠한 제약이 없다고 해도, 제한적인 교육으로 인해, 실제로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배웠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

8) 이 부분에 관하여 한국의 현모양처 담론의 의미를 재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예부터 현모양처가 여자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으로 정형화되어왔다. 요즘 시대를 사는 여자가 전통이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래야 한다는 마음에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면 자신을 삶을 아내와 엄마로 국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과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예부터 그래 왔으니 그냥 받아들인다면 비록 그녀가 현모양처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⁹⁾ 이를 보면 밀의 자유 개념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시점’에 간섭이 없는 자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필요조건이다. 밀은 개별성 제고를 제약하는 것들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despotism)라고 간주하였다. 개별성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함을 의미한다.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 더욱 근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 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밀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는 개인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순종하기를 강요받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요건 이외에, 스스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명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독립성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의 독립성을 양적으로 표현할 때, 제일 낮은 수치에 있는 사람들은 연속선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하는 전혀 독립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전승해 온 가치를 습관적으로/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자신의 개별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밀이 영웅이라고 칭한 독창적이고,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사람들이 있다(Mill, 1832).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록 특이하게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가치에 기저하고 있는 논리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비록 전통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고유의 가치로 인식하

9) 이 부분은 크리슈나무르티(Krishnamurti)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he Known)>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의 대부분은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외부의 권위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는 경향이 있다.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해당 문제를 비판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자신이 전통에 순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였다면 개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밀은 개인들이 전통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비록 그 사람이 다양한 삶의 양식들에 노출되었지만, 그 사람이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채택하였다고 하자. 밀의 논리에 근거하면 이 사람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삶의 양식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바로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삶이 적합한지를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을 행사하여 의식적으로 특정 양식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롭다(Mill, 1859/2013, 115-117쪽).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밀은 자유의 중요성과 수정 공리주의를 연결하기 위해 개별성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개인의 독특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리주의를 수정하면서 개인이 자기 행복을 주체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써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성은 인간 본성에 대한 밀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벤담의 주장과는 달리 밀은 개인의 본성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개별성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개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며, 더불어 개인의 부단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성 제고를 포기함은 바로 밀이 우려한 성찰이 없이 타인의 의견을 동조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부의 직접적인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밀은 이보다 더욱더 깊은 측면을 다루고

있다. 명약관화한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깊은 심리에 대한 장애물을 언급하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사람들의 인지 구조에 은밀한 영향력이 작동하는 것 또한 밀은 개별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사회계약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밀은 수많은 영향 가운데 개인의 개별성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영향력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밀은 이러한 영향력들이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종속〉에서 합리적 자유(rational freedom)와 사람들 간의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인 상호 호혜(reciprocal)적인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4. 도덕성이 전제된 합리적 자유와 상호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 호혜 관계

개인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환경으로서 밀은 “합리적 자유”(Mill, 1869/2006, 184쪽)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행위자가 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권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어떠한 권력 구조에 처해있는가에 따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Baum, 2000, pp. 4-5, pp. 10-12). 합리적 자유 개념은 자유론자의 자유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된 개념으로서, 인간은 자신들을 개인적으로 특성화(individuation)하기 위해서 공적인 삶에 참여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다. 자신이 타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위해 상호 호혜 관계(reciprocal relations)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자유는 개인만을 강조하는 자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관계를 배제한 자유에 관한 논의는 추상적

일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 자유라는 개념은 바로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 사람이 혼자 산다면 자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유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그러한 자유는 개인과 사회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비록 분리된 개인이지만 하나로 융합됨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 수준에서의 권리의 관계에서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교훈은 사람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비록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로 융합하는 데에 있다(Clark, 1975, pp. 107-108).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합리적 자유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바람직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서 “상호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 호혜 관계(reciprocal superiority)(Mill, 1869/2006, 182쪽)를 주장하고 있다. 상호 호혜 관계는 사람들 관계의 이상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밀이 주장하고 있는 상호 호혜 관계는 서로 협조하면서, 혼자서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관계로 보고 있다. 밀이 윌리엄 브리지 아담스(William Bridges Adams)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부인인 해리엇 테일러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밀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마음과 마음의 우정을 지속해서 가능하게 하는 넘치는 샘물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똑같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도 사람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존재에게는 그리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서로의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reciprocal superiority)이다. 우리는 각각 상대방이 알고 있지 않은 것을 많이 알고 있다. 더불어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 혹은 잘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다. 각자에게 상대방이 매우 소중한 수밖에 없는 다른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

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더욱 강할 수 밖에 없다(밀이 1832년 10월 20일에 William Bridges Adams에게 보낸 편지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로서 밀이 강조하고 있는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개인에게 나아가 사회에서 서로 간의 다른 점을 배우고 서로 위해주고 협조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깨우치는 관계다. 즉, 이러한 관계는 개인들의 지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상호 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 당시의 상황과 현재에도 어렵지만 - 서로 관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과 경험의 교환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밀은 언급하기를,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인해 친구 사이에서 각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상대방을 존경하게 된다.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존재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 사이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한다”(Mill, 1869/2006, 183쪽). 밀은 각자가 추상적 수준에서의 평등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위에서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여성의 종속> 말미에서 밀은 자유와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은 영원히 대립한다고 주장한다(Mill, 1869/2006, 187쪽). 따라서 정치적 혹은 사회의 삶에서 제외시키고 사람들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는 권력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성격 형성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만들어 가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하는 수많은 권력이 존재하고 실천되고 있다. 타인의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개인의 마음이 위축된다면, 열정은 축소되고, 영혼은 짓밟힐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의 자유를 위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단지 ‘싫증이 나는 노래’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비록 성문법, 즉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여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경고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력들 간의 균형을 제시하고 있다.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남성에 의해 여성들이 스스로가 위축된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밀은 이러한 심리적인 위축의 상태를 벗어나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삶을 “합리적인 자유의 삶”(184쪽)이라고 하였다(Mill, 1869/2006). 합리적인 자유는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세력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개인의 개별성을 스스로 제고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단순하게 공적인 차원에서의 남녀평등을 보장함이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횡포가 불공정하다고 인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인식 지배는 남성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도덕적인 권리를 앗아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밀은 성문법 차원에서의 평등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하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명문화된 법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위해, 타인에게 그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도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덕성이 전제된 합리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이 타인을 위한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으로 명문화된 자유에 관한 법의 존재 그 이상을 의미한다. 개인들이 처한 상황 요인들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개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권력 간의 역학 관계에 의해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

5. 결론 :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구분에 근거하고 있음을 서론에서 밝혔다. 그러나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개별성과 공리주의의 관계 틀에서 살펴본 결과 밀은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 자유의 전제인 원자론적 개인을 부정하고 있다. 밀의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인 개별성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접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사회는 개인들 간의 계약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관계망에서 살고 있다. 원자론적인 개인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한 개인(relational being)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린의 구분에 근거한 밀의 자유에 대한 개념 논의는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실체가 있고 명백한 압력과 같은 물리적 권력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밀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압력도 문제가 되지만 나아가 개인의 심리/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 압력과 개인의 자유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밀이 살았던 시절에 새로운 형태의 독재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조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독재로 인해 개인들에게 지적인 차원에서, 즉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밀은 우려하였다. 더불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어떠한 저항도 없이 순응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밀은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성 제고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개인들이 개별성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개별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개별성은 마음의 습관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상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과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를 살핀다. 사회성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러한 욕망이 타인에게 다수라는 숫자를 이용한 강요 행태로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밀은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 토론의 자유, 그리고 지적 자유를 주장하고 해악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개인의 개별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개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의 균형점'이 보장될 수 있는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법'을 우선시하였다(Mill, 1859/2013, 89쪽). 소크라테스식의 대화법은 누가 어느 의견을 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당 의견을 해당 맥락에서 상호 협조 하에 자신 의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토론의 자유와 지적 자유를 통해 개별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이다(이호규·박혜경,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상호 우월성을 인정한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다양한 압력과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우리는 조상, 가족, 그리고 동료 집단으로부터 해당 공동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와 신념을 배우면서 살아간다. 특히 현대인들의 삶은 많은 사람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동조가 현대인의 존재론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성은 바로 친숙하지 않은 경험과 새로운 생각들을 접하면서 자신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성이 필요하며, 타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이호규, 2019). 이러한 자세들은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때의 열린 마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함을 인정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 밀은 토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성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타인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소속된 집단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무의식적으로 밖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표현들이 만약 비판적인 성찰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라는 이유로 타인들에게 강요한다면 집단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도그마 혹은 편견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들 구성원의 개별성은 바로 자기 절제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비록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 표현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개별성 제고를 위해서 개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교류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고 어떠한 논리로 의견을 주장하는지를 자신의 논리와 비교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밀은 개인의 개별성과 성격이 사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도덕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밀의 논의에 해를 끼치는 요인이 바로 '다수의 횡포'이다. 즉, 다수가 소수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다. 다수의 소수에 대한 횡포도 우려할 사안이지만, 밀은 다수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람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하여 주권자(Mill, 1859/2013, 33쪽)이기 때문이다.

논문의 서론에서 논의하였듯이, 벌린의 자유 구분에 다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은 자유에 대해 소극적/적극적인 자유를 동시에 주장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소극적인 자유의 이미 정해진

잣대를 근거로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을 때, 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정형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별린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밀의 논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밀의 자유를 공리주의와 개별성의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였을 때, 밀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영향을 벗어나 '인식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질적 공리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와 이를 위한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한 상호 호혜 관계에 대한 밀의 논의는 현재 한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집단 간의 갈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성찰이 없는 동조자와 집단의 논리를 강요하는 행동은 개인의 개별성을 침해한다. 따라서 타인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신 논리의 무오류성을 강조함은 타인의 의견과 대조를 하면서 자신 논리의 결함을 수정할 기회를 포기하면서 개별성을 스스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래 (2006). 자유주의 맥락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교육론. <부산교육학연구>, 19권 1호, 81-101.
- 윤성현 (2009). J. S. Mill의 <자유론>에 나타난 자유 개념에 대한 일 고찰. <법과 사회>, 37권, 269-299.
- 이창희 (2017). 적극적 자유-밀과 롤스. <도덕윤리과교육>, 57권 1호, 207-230.
- 이호규 (2019). 존 스튜어트 밀의 시민상: 개별성과 토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26권 3호, 39-60.
- 이호규·박해경 (2020). 존 스튜어트 밀의 개별성 제고를 위한 대화 형식으로서의 토론의 자유. <한국언론학보>, 64권 2호, 158-183.
- Baum, B. (2000). *Rereading power and freedom in J.S. Mill*.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ellamy, R. (2020). *Rethinking liberalism*. London, England: Bloomsbury Academic.
- Bercovitch, S. (1990). Emerson, individualism, and the ambiguities of dissent.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89(3), 623-662.
- Berlin, I. (1958). *Four essays of liberty*.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Cavell, S. (1988). *Conditions handsome and unhandsome: The constitution of Emersonian perfectionism: The carus lectur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lark, S. (1975). *Aristotle's man: Speculations upon Aristotle's anthropology*.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de Tocqueville, A. (2010). *Democracy in America* (J. T. Schleifer, Trans.).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Original work

published 1840).

- Donner, W. (1991). *The liberal self: John Stuart Mill's moral and political theo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Giorgini, G. (2013). Three visions of liberty: John Stuart mill, Isaiah Berlin, Quentin Skinner. In K. N. Demetriou & A. Loizides (Eds.), *John Stuart Mill: A British Socrates*(pp. 207-229). Hampshire, UK: Palgrave Macmillan.
- Gray, J. (1996). *Mill on liberty: A defense*. London, England: Routledge.
- MacCallum, G. C. (1967).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 *The Philosophical Review*, 76(3), 313-334.
- Mill, J. S. (1832). On genius. In J. M. Robson & J. Stillinger (Eds.),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i-autobiography-and-literary-essays>
- Mill, J. S. (1833). Remarks on Bentham's philosophy.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essays-on-ethics-religion-and-society>
- Mill, J. S. (1836). Civilization.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VII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viii-essays-on-politics-and-society-part-i>
- Mill, J. S. (1843). The system of logic Part 2. In J. M. Robson (Ed.),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II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viii-a-system-of-logic-part-ii>
- Mill, J. S. (1859). *On liberty*. 서병훈(역)(2013). <존 스튜어트 밀 자유

론). 서울: 책세상.

Mill, J. S. (1869). *The subjection of woman*. 서병훈(역)(2006).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종속>. 서울: 책세상.

Mill, J. S. (1873). *Autobiography*. 최명관(역)(2010).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서울: 창.

Skinner, Q. (1998). *Liberty before liberalism*.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 고 일 자: 2022년 04월 02일

심 사 일 자: 2022년 05월 02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05월 20일

Abstract

A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Freedom by John Stuart Mill

with regards to the Concept of Individuality

Hokyu Lee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Most research regarding the concept of John Stuart Mill's liberty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of Isaiah Berlin. However, Mill opposed the atomistic individual which was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Berlin's discussion on liberty. Mill argues that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s not vali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ather individuals live together within the web of relationships.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centering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liberty might be implausible from the assumptions. Most of discussions on liberty have dealt with the visible and physical oppression as well as those kinds of oppression's validity. However, Mill emphasizes that physical oppression greatly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not be overlooked is the interference to affect the psychology as well as epistemology. From this standpoint, Mill suggests that individuals have to be an epistemological subject from the cultivation of individuality. For that being, Mill proposes the rational freedom to keep balance among the relationships which affect individuals' psychology. Furthermore, he proposes reciprocal superiority for the mode of relationship.

KEYWORDS Individuality, Rational Freedom, Reciprocal Superiority